

전남대병원 또 비상... 의료진·입원환자 3명 추가 확진

자가격리 해제 후 근무 중 양성판정 신경외과 중환자실 동일집단 격리 병원내 감염-서울방문 감염 확인 중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또 의료진과 입원 환자가 코로나19 신규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다. 신규 확진을 받은 의료진들은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후 정상 근무하다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방역당국은 병원 내 추가 감염 사례인지 서울 방문 감염 사례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전남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자정께 전남대병원 1동 근무 간호사 2명(광주 821·822번)이 추가 확진됐다. 이날 오전에는 확진

간호사와 접촉이 확인된 환자 1명(광주 824번)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확진판정을 받은 간호사들은 전남대병원 발 집단감염 시기인 지난달 14~27일 자가격리를 하고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까지 받고 지난 12일부터 정상 근무를 하던 중 이었다. 방역당국은 격리 해제된 의료진이 추가 확진되고, 입원 환자에게 전염까지 시켰지만 뚜렷한 감염경로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 간호사 2명은 기존 전남대병원발 집단감염 확산의 중심점이었던 신경외과 의료진이고, 이들 중 1명은 최근 서울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서울 방문 이력이 있는 822번 간호사는 지난 11일 증상이 발현했으나, 12일 병원에 출근해 근무한 뒤 13일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821번 간호사는 822번보다 이틀 늦은 13일 증상이 발현된 뒤 곧바

로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현재 신규 확진 사례가 병원 내 추가 확산인지, 서울 방문 감염 전파 인지 등을 놓고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일단 전남대 병원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거쳐 1병동 5층 신외과 과 중환자실 등을 동일 집단 격리 조치했으며, 의료진 35명과 환자 20명 등 총 55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격리 해제 간호사들이 추가 확진돼 병원 내 확산인지, 신규 감염 사례인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해당 병동의 격리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는 고도소 관련 접촉 감염 사례 23명과 지난 13일부터 신규 확진된 3명을 추가해 총 89명으로 늘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농민단체가 14일 전남도청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제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농민을 배제한 결정을 규탄하면서 전국민 보편적 지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경 광주전남연맹 제공>

“농민도 국민이다”

전남농민단체, 3차 재난지원금 농민 배제 규탄

자연재해 90% 농촌·농업 집중

전남 농민단체가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농민이 배제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광주전남연맹 등 전남 농민단체는 14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도 국민이다. 제3차 재난지원금 농민 배제, 선별지급을 추진하는 문재인-민주당 정권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농민단체는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제3차 재난지원금을 예산 핑계로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제1,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확인하게 알고 있는데도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농민단체는 “코로나 19와 함께 지난 초봄의 냉해, 기록적인 여름 폭우와 수해로 농민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2차,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서 농민을 배제한 것은 국가가 농민을 소외시키는 불평등한 배신행

위”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이개호(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광주일보 통화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보다 농민 피해가 적다고 여기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농민을 계속 배제하고 있다”며 “영호남 쌀 생산량이 예년보다 20~30% 줄어든 상황이다. 쌀 농가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보상과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농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태풍과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 폭우 등 자연재해로 전남 쌀 농가의 올 소득 총액은 지난해보다 3400억원가량 줄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남지역 벼 재배면적 15만 6000ha에서 20%가 줄었으니(통계청은 17% 감소 전망), 쌀 한 작목만 보더라도 농민 수확량 감소는 40kg 벼 500만 가마에 이르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피해액은 3400억원에 달한다는 게 농민단체 주장이다.

농민단체는 전남도와 전남 각 시군에 대해서도 “쌀 농가 피해 지원에 소극적”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에 만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며 새해 시작과 함께 3차 재난 지원금이 조기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한국형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를 내년 시행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언급한 뒤, “(자영

업자들이) 영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평하느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지원에 힘 써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겐 희생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내수 위축에도 한국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다”고 진단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코로나 감염 가장 위험한 지역은 상무지구

광전연 빅데이터 분석, 상무역·충장로·금남로 순

광주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상무지구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상무지구는 실제 유흥업소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이기도 하다.

14일 광주전남연구원 지역 정보조사센터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광주전남’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AI(인공지능) 빅데이터 가공을 통해 올 1~8월 광주의 유통인구와 다중이용시설현황, 코로나19 확진자 위치 등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상무지구(사청로)였다.

이러 상무역 부근과 충장로 및 금남로 부근이 2, 3위에 올랐다. 충장로와 금남로 부근에는 4, 6, 8위 구역이 밀집해 있었으며, 무진대로 부근(5위), 전남대병원 부근(7위), 운전저수지 부근(9위), 조선대 부근(10위)도 상위 10위 내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번 조사는 광주 도심을 가로, 세로 500m씩 156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감염 예측지수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월부터 7월까지 유통인구도 분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대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30대, 40대, 10대, 50대 순으로 감소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6~9시 사이에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오후 3~6시, 정오~오후 3시, 오전 9시~정오, 오후 9시~자정 등 순이었다.

행정동별로는 용봉동, 운암동, 치평동, 충장동, 첨단동, 광전동, 유덕동, 매곡동, 서남동, 하남동 순으로 유통 인구가 감소했다.

광주전남연구원 관계자는 “민간 빅데이터 제공·분석 기관과 협업을 통해 도출한 결과물도, 향후 감염병 대응지수 개발과 의료 인프라 확충, 방역지도 시각화 등 다양한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총리, 서울시청에 집무실 두고 수도권 방역 직접 챙긴다

백신·치료제 앞두고 마지막 고비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서울 시청에 집무실을 설치하고 수도권 방역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정 총리는 현재 서울시청에 있는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상황실에 집무실을 두고 직접 수도권 방역상황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국무총리실이 14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사용을 앞두고 이번이 방역의 마지막 고비라고 보고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수도권 방역 상황을 진두지휘하기로 한 것이다. 정 총리는 지난 2월 대구·경북 지역에서 대규모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대구시청에 임시 집무실을 둔 바 있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3단계 격상은) 그 효과에 대한 확실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도 각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월요일인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겸 수도권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만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한 결정도 주저하지 않겠다”면서도 “우선은 지

금 시행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온 국민이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동로 5층 승강기 가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아시장 주동로 코너 점포 8칸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3라브층, 수리사용가
산이래 마을 뒷 야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신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회소 북면 옥리** 금호온천 인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동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위해화장품 회수

「화장품법」 제5조의2에 따라 아래의 화장품품을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미엘 퓨어민트, 미엘클래식, 양주르45몰티슈 양주르 실키 몰티슈

나. 제조번호: 미엘퓨어민트(20.10.08.299.G1)
미엘클래식(20.10.06.599.G1)
양주르45몰티슈(20.10.06.196.G1)
양주르실키몰티슈(20.10.09.130.G1)

다.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형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 1년

라. 회수 사유: 상기 제품(제조번호) 일부에서 미생물기준 한도 초과

마. 회수 방법: 방문,택배

바. 회수 영업자: (주)지코르텍

사. 영업자 주소: 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102

아. 연락처: 061-373-5118

자. 그 밖의 사항: 위해화장품 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화장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화장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행안내 6294 2678, 010 3821 9090
12월19일(토)
▲광주 금강산악회 12월19일 (토) 부안 변산 마실길 4~8 코스(송년 점심제공), 불선 동빛마트앞 07:10, 진월 동식자재마트앞 07:20, 영주 체육관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정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8:00 * 다음카페 광주금강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광주 가고파트레킹 ☎ 010